

발 간 번 호
2016-어린이집지원-011

2016년 보육교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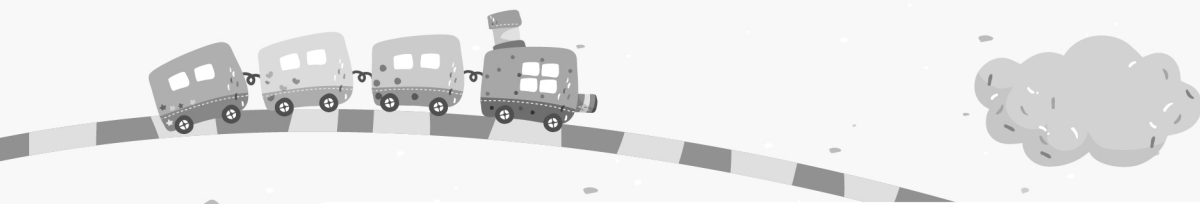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

제1장 |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7
2. 아동권리의 중요성	7
3. UN 아동권리협약	8

제2장 |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10
2. 아동학대의 유형	11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12
4. 아동학대의 현황	13
5. 아동학대의 후유증	19

제3장 |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이해

1. 법적 체계	20
2. 신고의무 체계	22
3. 전문기관 체계	27



제4장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

1.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28
2. 부모참여와 협력	32
3. 영유아존중 보육	34
• 보육교직원 영유아권리선서	52

부록

01.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53
0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신고사례	55
0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년 10월 기준, 57개소)	63
04.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6년 10월 기준, 92개소)	66



2016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기획/편집

성명	소속	직위
마미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장
김현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감수

성명	소속	직위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01

아동권리의 개념



인간의 권리란 출생과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 아동은 아직 스스로 생존하고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추가된다.

따라서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02

아동권리의 중요성



아동은 출생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누릴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그릇된 아동관과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의존적 존재로 생각한다.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누릴 가치가 있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존중받지 못한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으로 자라기 힘들게 되므로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아동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동권리가 중요한 이유다.

03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세기 이전, 많은 사람들은 아동을 성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으며, 아동을 노동인력으로 이용하거나 혹사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아동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 1차 세계대전 후 「아동권리선언문」이 제정됐다. 이후 「세계아동헌장」, 「제네바선언」, 「유엔아동권리선언」, 「국제아동의 해 제정」 등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국제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들을 규정하는 조약을 승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UN아동권리협약】**이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적 의지표현이자 국제인권협약이다.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총 54개 조항 중 기본 권리는 다음 4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표 1-1〉 기본원칙

기 본 원 칙	내 용
무차별의 원칙 (2조)	모든 어린이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시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6조)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참여의 원칙 (12조)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관련조항 내용

제2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은 4-3-1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 4-3-1은 4개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3원칙, 1과정이다.

〈표 1-2〉 4-3-1 모델

구 분	내 용
4 기본권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충분한 영양 섭취, 생명 유지,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차별로부터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3 원칙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제공
	•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
1 과정	•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

02 아동학대의 이해

0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 제 17조).

〈표 2-1〉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출처: 아동복지법 제 17조 <개정 2014.1.28>



0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 제 17조<개정 2014.1.28.>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 예

유형	구체적 행위의 예
신체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p><물리적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하는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p><교육적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유형	구체적 행위의 예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 8조 제 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p><의료적 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p><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재편집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을 하는 것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행동(방임)’이 모두 포함된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11).

03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각 요인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아동학대 발생 원인

가정		어린이집	
부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부족) • 영유아에게 지나친 기대 •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미성숙 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 알코올중독·약물중독 • 정서적 욕구불만 또는 사회적 고립 •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보육교사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 아동발달과 보육에 대한 지식 부족 • 그릇된 아동관 및 보육관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부족) • 영유아에게 지나친 기대 •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 미성숙 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가정		어린이집	
가정·지역·사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문제 • 신체적 체벌에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어린이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 교사교육 부족 • 영유아문제 지도방안에 대한 어린이집 내 논의 부족 • 영유아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관과의 연계 부족 •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 채용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재편집

04 아동학대의 현황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표2-4>와 같다. 2001년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5년에는 11,715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4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도 전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09.29.)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됨에 따라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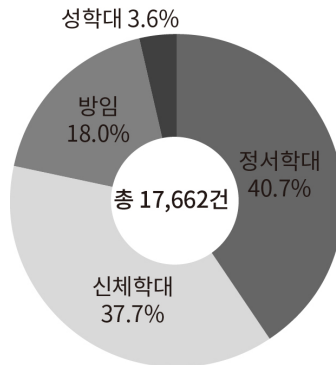
〈표 2-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69	10,027	11,715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증가 기관수		-	2	18	1	4	1	-	1	-	-	2	4	1	5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17,662건이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0.7%에 해당하는 7,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6,661건(37.7%), 방임이 3,175건(18.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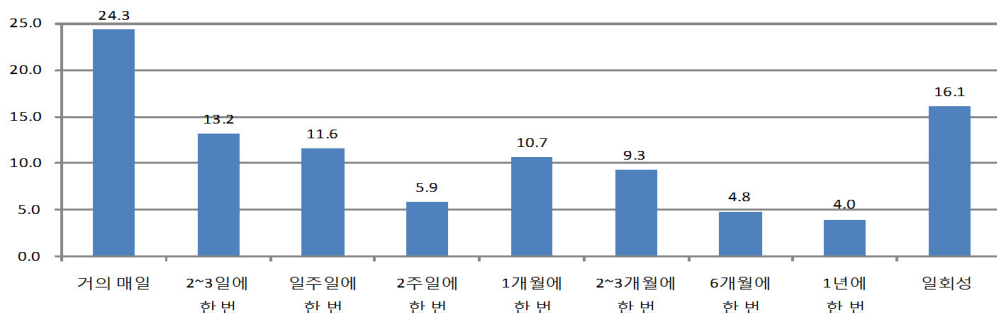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1]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포함)

아동학대 발생빈도에 대한 집계 결과를 [그림2-2]로 살펴보면 2,845건(24.3%)이 거의 매일 발생하였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사례는 1,546건(13.2%),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는 1,361건(11.6%)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9.1%로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가 장기화될 경우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아동은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9,641건(8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는 총 432건(3.7%)이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난 총 9,641건 중 아동 가정 내 발생 사례는 9,381건(80.1%), 나머지 260건(2.2%)은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외부에 발견되기 어려우므로 학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5〉 아동학대 발생 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계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9,381(80.1)	9,641(82.3)
	학대행위자 가정 내	260 (2.2)	
집근처 또는 길가		213 (1.8)	1,686 (14.4)
친척집		78(0.7)	
이웃집		19(0.2)	
어린이집		432 (3.7)	
유치원		207(1.8)	
학교		258(2.2)	
학원		68 (0.6)	
병원		49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331 (2.8)	388(3.3)
	기타복지시설	31 (0.3)	
숙박업소		61(0.5)	
종교시설		24 (0.2)	
기타		286(2.4)	
파악 안 됨		17 (0.1)	
계			11,715(100.0)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재편집

또한, 가장 많은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표 2-6>와 같이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영유아 보호와 교육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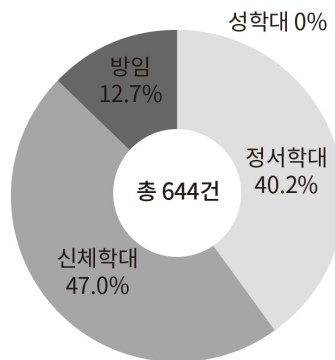
〈표 2-6〉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 건수	65	74	72	61	67	100	159	135	232	300	432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303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59건(40.2%), 방임 82건(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는 0건(0.0%)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3]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영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일방적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책임 전가하기, 비웃기, 창피 주기, 위협하기, 애정이나 정서적 지지 주지 않기, 무시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웃어주지 않기, 쉽게 핀잔주기,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기, 따끔하게 야단치는 강압적 훈육 등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행동은 양육자가 영유아를 수평적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당하는 수직적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다. 아이에게 언어 혹은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인격이나 감정을 심하게 무시,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정서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아이에게 심한 욕설 혹은 고함을 지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 내 따돌림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 모두 학대이다.



다음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 내용이다.

사례1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2016.9.12. 국제신문]

OO경찰서는 12일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P(여·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5세반 담임 교사인 P씨는 원생 A양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고, 손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지난 7월 12일부터 29일 사이에 15회에 걸쳐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주의·감독 의무에 소홀했던 어린이집 원장 K(여·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사례2 ‘오줌 싼다’며 바지 벗겨 때리고, 차고, 밥 안주고 등... 가혹행위 어린이집 교사

[2016.9.12. 세계일보]

뒤통수 때리기, 머리카락 잡아 흔들기, 발로 정강이 차기, 오줌 싼다고 바지 벗겨 때리기, 밥 안주고 벌세우기 등 거의 매일 어린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OO경찰서는 지난 8일 OO의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긴급 체포,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익명의 신고에 따라 OO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9월 1주일 동안 자신이 맡은 5세반 어린이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CCTV에서는 한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구석에 놔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가 맡은 15명 가운데 9월에만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가 7명으로 18차례에 걸쳐 학대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어린이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례3 경찰,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로 입건

[2016.9.26. 무등일보]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8개월 된 원아 몸에 상처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OO경찰서는 OO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1·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B(1)양의 목에 손톱으로 상처를 낸 혐의다. B양의 부모는 지난 19일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B양 목에서 굵고 길게 파인 상처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점심을 먹이면서 아이 팔을 붙들고 목 부위에 상처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밥을 먹이려 잡아당기다 상처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4 강제로 밥먹이고 엉덩이 때린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2016.10.7. 세계일보]

OO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2~3살 원생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엉덩이를 때려 멍들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등으로 기소된 OO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36·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살짜리 원생의 뺨을 8차례 세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37·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권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재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OO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양(3·여)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1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례5 원생 질식사 혐의 어린이집 교사 구속

[2016.10.3. 위클리뉴스]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담당교사 C(39·여)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C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OO지법 OO지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30분께 OO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모(3)군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특별한 신체적 외상은 없지만 외부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토대로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정밀 분석에서도 이불로 싸고 위에서 감싸는 자세로 보아 외부 폐색에 의한 질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추정 가능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목을 가눌 수 있고, 강압적으로 잠을 재우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사례6 어린이집 원생에게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 학대 혐의로 입건

[2016.10.25. 중부일보]

OO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 원장 B(42·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OO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 C(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먹게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포함,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모두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밥을 강제로 먹이고 팔과 몸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일 뿐 아이들을 때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05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이 미완료된 시기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따라서 일회적인 학대가 가해지더라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문제 증상을 야기하고, 또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신의학 관점에서의 관찰과 치료가 중요하다.

아동학대 후유증으로는 크게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형별로 후유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아동학대 후유증 유형

유형	내 용
신체적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손상: 신체 일부의 변형, 피부의 결손, 자상, 화상, 기능 손실 (예: 청력 저하, 시력 저하, 대소변 조절능력의 저하 등) • 발육 부진: 예상 신장과 체중에 미달함
정신적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 손상: 지능 발달에서 결함을 보임 •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각종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임 • 감정의 불안정성: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등을 보임 • 사회성의 저하: 또래 관계 및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유지가 어려움 • 학교 부적응: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혹은 졸업을 하지 못함 • 각종 정신과적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형 사회적 참여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아동학대는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학대받은 경험이 일생 동안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비행과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가 되어 또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문선화 외, 2010). 따라서 교사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01

법적 체계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자 1996년 OECD 가입국이 되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사회적, 국제적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적, 법적 요건을 보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아동복지법상에 최초로 포함되게 되었다.

〈표 3-1〉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내용과 시기

년도	개정 내용
2000년	•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 규정
2009년	•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명시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및 자격 기준 명확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업무범위 정립
2011년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신고 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 개정
2013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 75조) • 신고의무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재·개정 •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년 9월 29일)

출처 : 노충래(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력 강화와 입법과제. 재판집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 25. 개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닌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후 비교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신고의무자범위 확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집행 유예 가능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불가
과태료 상향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전화 129 / 1577-1391	신고전화 112로 통일
기타 변경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 마련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 •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우선

출처 : 노충래(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력 강화와 입법과제. 재판집

- 1)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02 신고의무 체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²⁾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신원노출과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데, 동법 제 62조에 따라 신고인의 신원보호가 보장되므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의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요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은 학대받는 아동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잘 관찰할 수 있으며, 타 신고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후유증이 심각하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1) 아동학대 발견하기

피해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정환경도 아동학대 의심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 아동의 부모님이 실직하였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한 경우, 아동의 상처 등에 대한 보호자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가 자주 음주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보육교직원 혹은 다른 부모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을 자주 혹은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나 뒤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교사직군(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의료인직군,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2016년 1월 신설직군(아이돌보미 지원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일반적으로 학대상처는 일반상처와는 다르게 허벅지 안쪽이나 어깨 등 다치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양손골절 및 두 가지 이상의 중복골절을 발견하거나, 아동의 귀, 코, 목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의 출혈 흔적 및 상처자국, 아동의 연령에 맞지 않는 다리미나 담뱃불로 인한 화상자국, 벨트자국, 이빨자국 등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타박상 및 상처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행동적 징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신고하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에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표 3-3>과 같은 정보 및 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제공한다.

<표 3-3>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할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학대 의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의심 증거 • 학대 발견 시 상황 • 학대상처 • 학대지속성 	피해아동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전화번호 • 피해아동의 특징 •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 등
학대행위 의심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전화번호, 직업 • 학대행위자 특징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등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전화번호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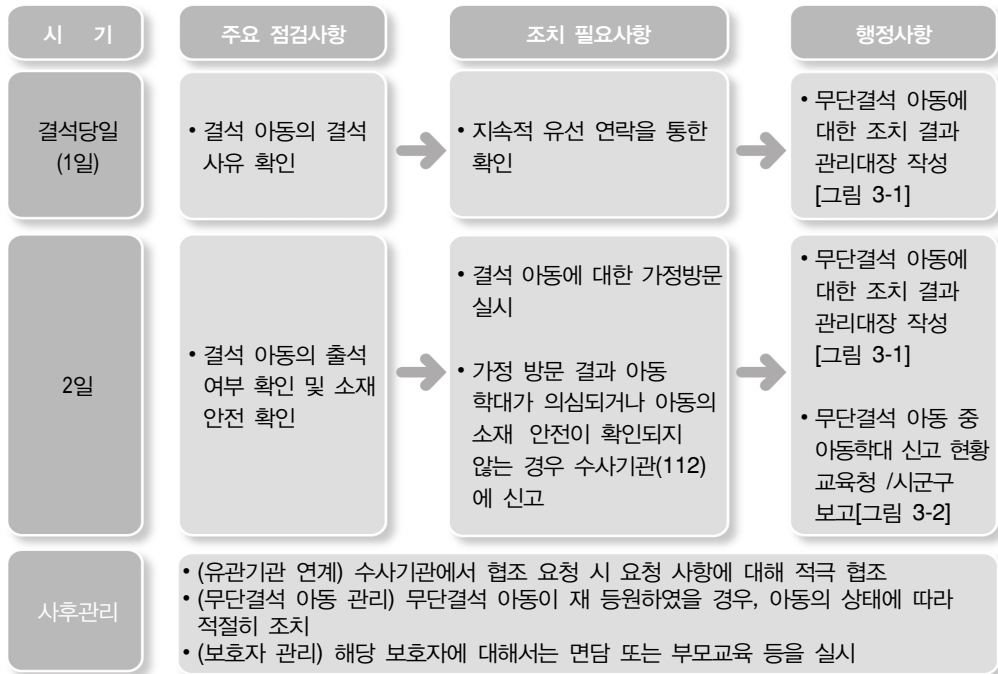
(3) 협력 및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지지해야 하며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를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보육교직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반응 및 신체 접촉은 아동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면담하는 경우 알고 있는 사실 모두를 말하는 것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3)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한다.

(1) 관리·대응 흐름도



출처: 교육부·복지부(2016)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2) 관리·대응 매뉴얼

결석 기간	할 일
결석당일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 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원장은 유선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수사기관(112)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방문 실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교사는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 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출처: 교육부·복지부(2016)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그림 3-1]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서식)

■ 유치원·어린이집 보관용 ■

OO유치원·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서식)

유치원명	반명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만나이)	담당 교사
○○유치원					

결석날짜 (일수누계) 1)	아동 안전 확인 방법	아동안전 확인일자	안전 확인 결과	출석 예정일	점검 및 조치 결과						아동 학대 신고 판단 이유	통화자	비고 (신고일, 기타 사항 등)
					합동점검				아동학대 상담 또는 신고				
					합동 점검 (O,X) 2)	점검자 (소속)	연락처	동행일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O,X)	112 신고 (O,X)			
16-3-24 (1일)	전화	16-3-24	통화 안됨	-	-	-	-	-	-	-	판단 보류		지속적 통화 시도
16-3-25 (2일)	가정 방문	16-3-25	면담 거부	-	O	OOO (유치원) OOO (OO동 주민센터)		16-3-25 (16:00~ 16:30)	-	O	학대 징후 의심 (소재 불명)		16-3-25 신고
16-4-10 (1일)	전화	16-4-11	친지 방문	16-4-14	-	-	-	-	-	-		어머니	-

1) 일수 누계는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일수를 말하며 추후에 무단결석 발생 시 1일부터 다시 산정

2) 합동점검이란 유관 기관(읍면동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매일 무단결석아동의 현황을 관리하고 자체 보관

[그림 3-2]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 현황 교육청/시군구 보고 공문

수신 : 0000 교육청/시군구

제목 :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 현황 보고 (즉시 보고)

1. 관련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2. 본 원의 재원 아동 중 2일 이상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112)에 신고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시도	교육 지원 청명	유치원명/ 어린이집명	성명 “성”만 기재, 이름은 미기재	성별	생년월	결석 날짜 (일수 누계) 1)	아동 안전 확인 방법	아동안전 확인일자	점검 및 조치 결과 (112 신고)	아동학대 신고판단 이유	비고 (신고일)
1				최00	여	10년 6월	2일	가정 방문	16-3-25	0	학대징후 의심 (소재불명)	16-3-25
2				유00	남	12년 9월	2일	전화	16-0-25	0	학대징후 의심 (아동에게 확인)	16-3-25
계				2명						2건		

1) 일수 누계는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일수를 말하며 추후에 무단결석 발생 시 1일부터 다시 산정
끝.



03 전문기관 체계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각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³⁾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57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사태에 관한 일련의 모든 조치와 관리를 수행하며,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정,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치료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아래 <표3-4> 와 같다.

<표 3-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개입과정	역할
신고접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
현장조사 및 혐의 여부판단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며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
조치결정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음.
↓	↓
서비스 제공	조치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후유증감소와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고소고발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함.

3)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6년 10월 기준) 부록 참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부모참여 및 협력, 영유아존중 보육 등 다각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1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1) 교직원 채용 시 인성 검증

보육교사, 취사부, 운전기사, 사무원 등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교직원 채용 시 면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면접 시 인성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아동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보육할 수 있는 기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2) 신입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신입교직원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하며, 보육실습생 및 자원봉사자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철학과 보육목표, 프로그램 특성과 직무, 안전, 영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직원의 구체적 수칙과 예방절차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3) 근무환경 관리

① 모델링과 멘토 지원하기

신입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필요하며 자문을 줄 수 있는 멘토 교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력교사는 신입교사의 멘토가 되어 관찰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② 휴식시간 배려하기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종일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 상 보육교사의 정신적 피로감 누적으로 아동학대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휴식을 위한 공간과 시간 배려하여 보육교



사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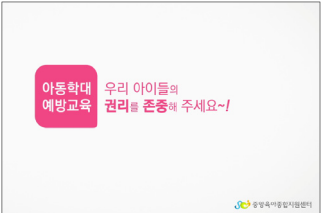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개별적 지도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 및 직무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정기적인 외부교육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체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보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표 4-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교육

구 분	방 법	내 용
외부교육	외부 기관교육	•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직무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자체교육	사례연구	•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 연구 • 어린이집에서 실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 연구
	전문도서 고찰	•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문도서 고찰 • 아동복지, 영유아 발달, 상호작용방법, 영유아생활 지도, 훈육방법 등의 도서 고찰
	사이버 강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영상을 통한 단체 또는 개별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 관련학계 교수 등을 초빙하여 교육 • 어린이집 자체 또는 인근 어린이집과 연합하여 전문가 초빙
	동영상 활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TV방영자료 등의 동영상 자료 활용

〈표 4-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자체교육 예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교육 「영유아 권리 존중」	
	1차시: 영유아 권리 이해하기 2차시: 영유아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역할 3차시: 영유아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모 역할 4차시: 평가 및 마무리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 아동학대예방(온라인교육) 「영유아권리존중」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출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권리존중보육(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의 이해와 중요성 • 어린이집 하루일과 중 권리존중 사례와 미존중 사례 • 어린이집 하루일과를 통한 권리존중 보육 • 보육교사의 권리존중보육의 의미
동영상 재생 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나눔정보 → 자료실 → 동영상 자료 → 「권리존중보육(아동학대예방)동영상」 ※ 수료증 미발급

5)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긴 보육시간 외에도 직장상사,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의 생활지도 등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떨어뜨리며,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영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리법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인의 적절한 방법과 조직적 협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무스트레스의 양을 최소화 시키면서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몇 가지 대처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위 사람들을 활용하라.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치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 생활을 즐겨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시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개인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가생활은 취미활동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라.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슈퍼바이저를 만들어라. 나를 이해하고, 보육교사의 역할을 이해하여 조언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만들어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박선아 외, 2014).

(2)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가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퇴직이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보육의 안정성 및 질 저하를 가져온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⁴⁾에서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영유아보육법⁵⁾ 개정을 통하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보육교직원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유형

유형	내용
홈페이지 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글로 작성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보육교직원은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에 유선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면담상담(개별)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일정을 접수한다.
면담상담(집단)	시도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집단상담 안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기타 직무스트레스 상담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4)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6년 2월 기준) 부록 참조

5) 7조 제 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유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표 4-4〉 직무스트레스 상담 기관

기관	전화번호	활용내용
근로자 건강센터	1577-6497, 1588-6497	• 직무스트레스 수준평가 • 심리검사 해석, 심리교육, 상담 • 정기적 평가, 스트레스 관리법
한국건강관리협회	02-2600-2000 (검진문의전용)	• 스트레스 검사 및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야간, 주말)	•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담

02 부모참여와 협력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부모참여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참여활동, 주요 부모참여활동, 기타 부모참여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4-5〉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참여활동 방법

활동명	방 법
입소 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전 영유아 발달 체크(사회, 정서, 언어, 신체, 인지발달 등) •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 파악 • 상담을 통해 입소 후 개별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이 되도록 계획
부모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신학기 시작 전 2월경 실시 • 중간 입소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 • 어린이집의 운영방침과 보육프로그램, 행사, 담당교사 등을 안내 • 가정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안내 • 학부모 의견, 건의사항 수용(질문과 요구도 조사)

〈표 4-6〉 주요 부모참여활동 방법

활동명	방 법
어린이집의 개방 (참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상황을 관찰하도록 배려 • 어린이집 개방원칙을 통해 신뢰 형성 가능 • 개방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부모에게 안내 • 영유아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개방 • CCTV, 일방경, 교실문(창) 등을 이용



활동명	방 법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법 •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협력 • 운영위원은 원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 • 모든 부모에게 회의 개최사실 안내, 회의결과 안내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부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체 또는 반별 간담회 실시 • 전체 부모 의견수렴 가능 • 학부모 의견 반영하고 협력적 지도방법 모색 •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정도 실시
부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찰을 통해 아동 발달을 파악 • 교사와 부모가 1:1로 만나 자녀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 부모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로 부모 신뢰 구축 • 면담 일지를 작성하고 면담 후 면담내용 요약과 향후 지도방향을 작성하여 가정으로 발송하면 더 효과적 • 정기적(연간 2회), 비정기적 상담 실시 • 부모에게 편안함 주기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대화로 면담을 시작하여 면담 중에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사용은 자제 • 부모에 대한 존중 나타내기 예의바른 언어 사용(존댓말)과 표정(미소)이나 몸짓(인사) 뿐 아니라 면담 시간(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및 좌석배정을 통해서도 부모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기 부모가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맞장구 등을 통해 부모의 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 부모가 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단시키기보다 수용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함 • 구체적으로 말하기 구체적인 일화나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부모가 교사가 전해주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어린이집 교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바람직한 양육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제공 • 부모역할, 영유아의 발달, 안전, 영양 등에 관한 주제 선택
부모 만족도(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부모의견 수렴 • 보육철학, 프로그램, 건강, 영양, 안전, 위생, 행사 등의 내용을 설문지에 포함 • 어린이집 활동에 관한 전체 평가가 가능 • 정기 만족도(설문)는 연간 2회 정도 실시 • 어린이집 행사 후 만족도(설문) 실시

〈표 4-7〉 기타 부모참여활동 방법

활동명	방 법
직접 경험에의 참여 (보조교사, 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교사: 직접 돌보거나 부모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는 보조교사의 역할로 참여 • 주교사: 부모의 전문성을 살려 하루 보육 시간의 전부를 담당하는 주교사 역할로 참여(스승의 날 일일교사) • 부모 역할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제작 등을 도울 수 있음 •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협력 가능 •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됨
알림장 대화수첩 일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또는 주기적으로 작성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 가능 • 영유아의 발달 상태 파악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게시판 가정통신문 보육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 공개 • 어린이집 활동(보육활동, 사진, 식단 등)에 대한 진행 정보 공개 • 부모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가능 • 부모에게 육아정보 및 안전교육 등의 자료 제공

03 영유아존중 보육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누릴 가치가 있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아동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며 무능한 존재도 아니다. 영유아존중 보육이란 용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아동기관 전문가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개발된 아동권리교육용 교재 개발연구에서 보육교사용 자료집을 개발한 연구자들(서영숙, 서혜전, 김진숙, 2009)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육교사가 아동권리감수성을 가지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영유아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보육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권리존중 보육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 후 일과운영을 포함하여 아동존중 보육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학대예방을 넘어 진정한 영유아존중의 보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1) 영유아 발달특성 이해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 시 유아의 문제행동을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아가 보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성인 중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미성숙하고 문제가 되는 부적응 행동일뿐,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보여지는 행동 특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완정, 2015).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표 4-8〉 영아기 발달특성 및 교사의 역할

연령	발달특성	교사의 역할
만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주로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8~12개월이 되면 타인의 얼굴표정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상황을 판단 양육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신뢰감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는 영아와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개별 영아의 발달특성, 기저귀 갈기, 수면 등을 미리 체크하여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한다. 영아의 울음에 인내심을 갖고 지도한다. →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면, 일단 영아의 감정을 수용한다.
만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 가만히 있지 않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신체의 움직임이 많음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는 단어(나, 내 것...)를 사용하여 사회관계를 확장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의 기초가 형성되므로 일상적 생활을 스스로 하고자 하지만, 쉽게 잘 할 수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표현이 미숙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보육교사는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정하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영아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인형, 역할 놀이, 블록, 점토, 신체놀이 등). 놀이 공간의 크기 및 활동의 균형도 고려하여 제시해줌으로써 충분한 정서적 표현을 하는 기회를 주거나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예: 신체놀이, 바깥놀이).
만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발달을 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어짐 ‘싫어’, ‘안 해’ 등의 반항적인 말을 사용함 또래와 놀잇감 공유가 어려워 갈등현상을 많이 일으킴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 지연된 만족을 수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싫어’, ‘안 해’와 같은 말은 정상적 발달과정으로 이해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영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말로 부박하기, 차례 지키기 등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며 규칙을 설명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인정 여부를 표현하기 위해 교사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말 등을 이용한다. 영아가 하루 일과에 잘 적응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과를 제공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Tip 영아교사를 위하여...

- ◎ 영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항상 영아의 발성이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영아의 말을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말해주는 등 명료화 시켜주어야 한다.
- ◎ 영아의 행동에 대해 비평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영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영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 ◎ 영아의 탐색을 위해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탐색 행동을 격려하며, 영아의 리듬과 속도에 맞추어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 ◎ 다른 영아의 놀잇감을 뺏고 활동을 방해하는 영아에게 대안적인 놀잇감을 찾아주거나 다른 재미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영아의 일상생활을 교사가 돌봐주거나 지도하여야 한다.
- ◎ 안전하게 노는 방법과 다른 영아들과 함께 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 영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보육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여야 한다.

출처:이은혜(2003).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찰척도. 서울: 다음세대.

〈표 4-9〉 유아기 발달특성 및 교사의 역할

연령	발달특성	교사의 역할
만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대한 자조능력이 숙달되고 호기심과 탐색욕구가 강함 • 규칙을 배울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행동이 나타남 • 아직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기 어려워 신체적 싸움을 많이 보임 •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행동하고자 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므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는 개별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야 한다. → 모든 종류의 정서(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를 인정해주고 이야기 할 때, 아동은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된다. • 칭찬과 격려를 적절하게 해 준다.
만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함 • 또래와의 원만한 협동놀이도 이루어짐 • 갈등상황이 많아지며 해결을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칙, 인성의 중요성을 지도해 줘야 한다. •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 언어적 자극과 지지가 필요하다.

**Tip 유아교사를 위하여...**

- 등 하원 시 유아를 따뜻하게 대한다.
- 유아와 신체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
-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춘다.
- 유아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전달하는 말은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 유아를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 유아 간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히 개입한다.
- 유아와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활동할 때 학급 전체 상황을 수시로 관찰한다.
- 유아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즐긴다.
- 유아의 놀이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을 한다.

출처: 이은혜(2003).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찰척도. 서울: 다음세대.

2)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은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며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보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강한 윤리의식과 영유아발달과 일과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영숙 등, 2009). 이를 위해 보육교사는 매일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바람직한 습관과 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상황에 알맞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또래, 교사, 가족 등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기술을 익히고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의 원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교사 중심으로 일과가 운영될 경우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모든 아동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 중심의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 일과운영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보육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1) 등원 및 맞이하기

① 일과 준비 및 환경 점검

영유아가 등원하기 전 보육교사가 보육실의 안전을 점검하고 보육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조명, 채광,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영유아를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행동의 일환이다. 영유아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가 있으며 온도와 환기 조절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불쾌감이 높아져서 짜증이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보육실을 자주 비울 경우 안전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일과 시작 전 필요한 활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일과 운영시 보육실을 비우거나 분주해지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② 맞이하기

보육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 일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영유아와 눈을 마주하고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유아를 맞이한다. 부모와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영유아는 등을 토닥이거나 몇 분 동안 안아주는 등 신체적 접촉, 정서적 동조감, 개별적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영아의 헤어짐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건강상태 확인하기

보육교사는 부모와의 대화, 영유아 관찰, 알림장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투약사항, 중간 귀가여부 등을 확인한다.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하루 일과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④ 등원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영유아의 등원 및 맞이하기 상황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0〉 등원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등원을 거부하거나 울면서 등원하는 경우	(분리불안인 영유아) • 이제 엄마 가셨으니까 그만 울어. • 친구들은 아무도 울지 않고 있네. • 계속 울면 선생님이 안아주지 않을 꺼야.	• 00야 엄마랑 함께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가셔서 속상하구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엄마가 00를 데리러 오신대. 친구들이 00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가볼까?
	(엄마와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영유아) • 이러면 엄마 힘들지? •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 (영유아를 안고 토닥이며)엄마랑 같이 있고 싶구나. 선생님이 엄마처럼 안아줄까?
	(유아가 울면서 등원 했을 때) • 울면 애기 되는데 똑! • 형님처럼 의젓하게 와야지.	• 우리 00이의 기분이 왜 좋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었니? 00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걱정돼. 무슨 일이야?
늦게 등원하는 경우	• 누가 늦게 오래요? 일찍 오세요. • 들어오기 싫어? 그럼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우리 노는 거 구경하세요.	• 00야 선생님이 00를 아침 일찍부터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내일은 일찍 와서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자.
아침을 못 먹고 등원하는 경우	(아침을 못 먹고 등원한 영아를 챙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오지 • 네 거니까 혼자서 먹으세요. 선생님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요. • (귀찮은 듯 인상 쓰며) 휴~	• 00는 아침을 못 먹었구나. 배고프겠네. • 우리 교실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까?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집에서 장난감을 가져온 경우	• 선생님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음에 또 가져오면 뺏어서 선생님이 가질 거야.	•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장난감을 가져오면 다른 친구들도 갖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경우	(유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할 때) • 선생님이 지금 친구들 물건 정리하느라 바쁜 거 보이지?	• 00야 미안. 선생님이 물건 정리하느라 잘 못 들었어. 다시 이야기 해줄래?
	(인사를 하지 않고 등원하는 영유아) • 인사도 안하니?	• 00야 안녕? 기분 괜찮아? 웃는 모습이 예쁜 00가 선생님 보고 인사를 안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했어. 우리 다시 반갑게 인사해 볼까?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경우	(가방, 옷, 수첩 등 정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유아가 있을 때) • 다른 친구들 정리할 때 뭐했니?	•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까?
	(씻지 않고 등원한 유아) • 여자아이가 목욕도 안하고 더러워. 물티슈로 얼굴 좀 닦아. • 넌 혼자서 세수도 못하니?	• 선생님이랑 같이 깨끗하게 세수할까?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00는 혼자서 세수도 양치도 잘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리자!

(2) 자유선택활동

①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 구성

놀이는 영유아에게 있어 생활이며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성장하며 학습한다. 때로는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열 마디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영유아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보육교사는 주제에 따라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부한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놀이를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환경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면 교사는 영유아를 통제하는데 기력이 소진되어 영유아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육교사는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위험 요인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긍정적 상호작용 하기

보육교사는 놀이과정 속에서 영유아-영유아, 영유아-교구, 영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모든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놀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할 때, 영유아가 놀이 중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놀이가 확장되어야 할 때, 영유아에게 정서적 위로가 필요할 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놀이시 주도권을 영유아에게 주어야 하며 지시자이거나 감독관이기보다는 놀이대상자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통해 놀이를 확장시킨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언어와 신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며,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말해야 한다. 때때로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는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③ 자유선택활동 시간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자유선택활동시간에는 예시에서 제시된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자유선택활동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상황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교사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님인데, 혼자 해야지. • 선생님은 일해야 하니깐 친구랑 놀아. • 다른 애들은 혼자서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다른 친구들 하는 것 좀 봐? • 넌 이것도 못하니? 다른 친구들은 다 하잖아. 너는 이거 다할 때까지 여기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혼자 해볼까? 선생님 생각에는 OO이가 혼자 선생님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여기까지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어려워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 OO야, 이 부분이 어렵구나! 어려운데도 혼자하려는 너의 모습이 아주 멋져! 어려운 활동이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다음 활동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놀잇감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거 친구에게 얼른 나눠줘! 욕심 부리면 놀이 못해. •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 그거 어린이집 꺼지. 니꺼니? • 너만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돼. • 야! 눈 똑바로 떠. 이게 니꺼니? 또 거짓말하네. • 애기처럼 욕심내는 친구는 동생반에 가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모두 갖고 싶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갖고 놀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 네가 갖고 싶어하는 놀잇감을 OO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양보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 OO야 집에도 똑같은 것이 있나보구나! 어린이집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야.
갈등을 빈번하게 만드는 영유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혼자 놀이하세요. • 애들아~ OO이가 저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고 싶었구나.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친구들과 다툼이 생겨 속상할 것 같네. • 친구들이 OO와 어떻게 놀이하고 싶은지 친구의 생각을 들어볼까?
또래를 물거나 때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너도 이렇게 물면 좋아? • 또 너야?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했니? •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네 입이 나쁜 거지. (손으로 입을 때리며) 나쁜 입은 혼나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야. 장난감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런데 만약 다른 친구가 너를 때린다면 기분이 어떨겠니? • OO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속상해서 물었니? 그런데 친구가 많이 아프다고 울고 있네. OO도 이렇게 물면 많이 아플 거야~! 이제부터 친구에게 말로 해 줄 수 있을까?
특정 영유아만 괴롭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아저씨~ OO 잡아주세요. • 너 스토커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다른 친구가 OO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놀이를 방해한다면 OO의 기분이 어떨겠니? • OO가 ☆☆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친구를 불편하게하면 ☆☆가 너무 슬프고 OO와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까? • OO가 ☆☆와 함께 놀고 싶구나! 그러면 ☆☆는 OO와 어떤 놀이를 함께하면 재미있을까? 우리 ☆☆의 생각도 함께 들어볼까?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한가지 활동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만 그 놀이하면 다른 애는 어떡하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이 장난감이 재미있구나. 그런데 이 장난감 말고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다른 영역에도 한번가볼까? • OO가 만들기를 아주 잘했네. 완성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 블록영역에 블록들과 함께 꾸미기를 해볼까? • OO야 이 장난감이 재미있어요? 다른 장난감하고도 같이 놀이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해볼까?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놀이 시 덥다고 하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더워요~ 덥지 않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원해질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재미있게 놀이했구나? OO야 입은 옷옷 하나만 벗어볼까? • 우리 교실의 온도계를 봐 볼까? 진짜 더워졌구나?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놀면서 칭얼거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리면 혼자 가서 자면 되지 왜 이렇게 칭얼대니? 짜증내고 우는 소리하면 선생님은 안 들어줄 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졸립구나. 휴식영역에 가서 좀 쉬었다가 놀이할까?
놀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기 싫어? •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한 곳에 앉아서 놀아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어떤 놀이를 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했구나. 가까이 가서 보면서 어떤 놀이를 할지 정해볼까? • ☆☆가 정말 재미있게 놀이하지? 와~ 재미있겠다. 우리도 △△놀이 해볼까?
친구의 구성물을 계속 부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또! 또! 또! 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친구가 만들기 한 것을 계속 망가뜨리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 OO야, 열심히 만든 것을 부수면 너무 속상할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친구가 만든 걸 부수지 말도록 하자.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 모서리에 성기 부분을 비비는 행위를 하는 유아) 좋냐! 좋아? 어린 것이 벌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주의하도록 하자. OO야, 선생님이랑 책 읽어 볼까?

(3) 정리정돈

① 영유아의 놀이욕구 살피기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을 위해 보육교사는 놀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정리정돈을 진행하기 보다는 놀이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리정돈을 하기 전 영유아의 현재 놀이상황이 어떠한지, 충분한 놀이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하며, 놀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시간을 늘려주는 등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정리정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유아들을 안내하는 보육교사의 마음이 조급하여 유아들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 영유아의 정리정돈을 독촉하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유발되게 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정리정돈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정리정돈하기 5~10

분 전에 미리 정리시간임을 알려주는 노래나 악기소리 등의 예고를 통해 영유아가 놀이를 정리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놀잇감 정리하기

놀잇감 정리시 교사 혼자 일방적으로 치우거나 영유아로 하여금 모두 정리하도록 하기보다는 교사는 모델링이 되어주며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영유아는 또래와 함께 정리정돈을 하면서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영아반의 경우, 보육교사는 활동 중간 중간 놀잇감을 정리하여 영아가 놀잇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유아반의 경우, 다른 놀이로 이동할 때 하던 놀잇감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개별적으로 다가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정리한 후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격려한다.

③ 정리정돈 및 전이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정리정돈 시간에는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와 놀잇감을 정리하는 친구를 방해하는 경우에 갈등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2〉 정리정돈 및 전이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는 또 정리 안하는구나. 다음에 놀이하지 마세요. •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니? 잘 정리해봐! • 너 정리 안하고 혼자 돌아다녀 우리끼리 간다. 너 혼자 여기 있어! • 정리하기 싫어. 그럼 정리하지마! 우리끼리만 정리하자. OO는 정리하지마세요. 우리는 정리하고 재밌는 거 할건데 OO이는 재미있는거 못 하겠다. • 불 끈다. • 정리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 나봐, 아가반에 가서 다시 배우고 와야겠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바구니를 제시하고) 우리 장난감을 집에 넣어 주자. • 놀이 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교실은 어떻게 될까? • 장난감이 울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울고 있나 봐요. 누가 이 장난감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 OO가 더 놀고 싶구나. 그런데 이제 산책을 가야할 시간이니깐 여기에 올려놓고 오후시간에 다시 놀이하면 어떨까?
놀잇감을 정리하는 친구를 방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야, 블록을 던지면 어떡해! • 다른 친구들은 정리하고 있잖아. 너도 얼른 정리해! • 정리 안하면 다음 활동 못한다. 장난감 정리 안하면 다른 반 줘 버릴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이는 쌓기영역을 정리하고 있네. 친구를 도와줄 사람 손들어 보세요. OO야 너도 해 볼까? • OO야 너가 친구들이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4) 식사와 간식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리적 욕구를 존중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영양이 풍부한 배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지루함을 배려하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평소 식사량을 관찰해야 한다.

① 즐거운 분위기 조성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간식 및 점심을 먹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예: 영유아의 가족, 하루일과 중의 일). 또한 영유아는 식품에 대한 기호가 자리 잡아 편식이 생길 수 있기에 음식에 대한 즐거운 경험 및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개별차이를 고려하여 제공 및 지도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배가 고픈지 수시로 확인하고 수유 간격과 먹는 양 등을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하고, 충분히 먹었는지 살피고 영유아가 스스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격려한다. 연령 및 식습관에 따라 개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도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놀이 및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③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에 관한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고 음식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영유아에 따라 음식의 양과 선호도 등에 대한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별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상호작용한다. 교사가 좋은 역할모델(예: 포크와 수저 등 도구 사용하기, 맛있게 골고루먹기, 즐거운 대화나누기 등)이 되도록 실천한다.

④ 간식 및 점심시간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간식 및 점심시간에는 예시에서 제시된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3〉 간식 및 점심시간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밥을 늦게 먹거나 먹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리 먹지 않으면 정리한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먹었는데 너는 아직도 다 안 먹고 뭐하고있니? • 너만 남았어, 얼른 먹어야지. • 아기반에 가서 먹어야겠다. • 이거 다 먹어야 놀이할 수 있어. • 좀 먹어. 그럼 너 키 안 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가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배가 고파서 재미있게 놀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한 숟가락 먹여 줄 테니까 나머지는 00가 먹을 수 있겠니? • 오늘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00가 정해 볼까? 00가 정한 것만큼은 꼭 먹어보자. 화이팅!
바닥에 먹기 싫은 음식을 버리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나 몸을 껏 잡고 흔들며) 지금 뭐하는거야? • (짜려보거나 무서운 눈빛으로 제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근 먹기 어렵니? 그럼 조금만 먹을까? 그렇다고 바닥에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선생님에게 '조금만 먹들래요.' 하고 이야기 하거나 선생님과 먹는 연습을 해보자. • 우유를 쏟았구나. 놀랐지? 옷은 안 젖었어? 괜찮아. 흘릴 수도 있어. 닦으면 되지. 다음에는 더 조심하자.
식사후 정리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가 먹었던 건데 네가 정리해야지. • 아이고 이 아저씨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도시락 정리하세요. 잘 안되는 친구는 선생님이 도와 줄게요. • 애들아 숟가락은 여기, 젓가락은 옆에, 식판은 이 통에 넣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떠들거나 장난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넌 애기야? 밥을 혼자 못 먹니? • 밥 입에 넣어 얼른 삼켜. • 밥 다 먹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야.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야기하자.
돌아다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팔을 세게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돼. • 저기 00는 밥 안먹고 돌아다니네~ • 애들아 저렇게 돌아다니면 되니? • 간식 들고 다닐거야? 안다닐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야 우리 세 번만 앉아서 먹어볼까?
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니, 바르게 앉아야지, 아기 같구나. • 누웠네 누웠어. •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앉아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아플 수도 있대. 우리 앉아서 먹어 볼까?
기타	(포크로 장난치는 유아) • 손등을 때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크처럼 뾰족한 물건으로 친구를 찌르니까 친구가 어땠지?
	(배식할 때 음식 냄새를 맡는 유아) • 코가 들어가겠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가 배고프구나. 선생님이 맛있는 밥 부지런히 준비할게.
	(식사시간에 자리를 정할 때) • 선생님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으세요. • 너 또 거기에 앉는다고 우는 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00이는 오늘 **이 옆에 앉았네.
	(식사시간 내내 밥과 물을 함께 먹는 유아가 있을 때) • 누가 밥 먹을 때 물 먹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밥과 물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될 수도 있대. 밥 먼저 먹고 물은 나중에 먹을까?



(5) 집단 활동

①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 제공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흥미로워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교사-영유아, 영유아-영유아, 교수자료-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때, 보육교사는 질문, 제안, 영유아의 반응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등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사용하는 목소리의 크기, 속도, 발음, 올바른 어휘, 다양한 표현에 유의한다. 집단 활동 진행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참여수준을 정해야 하며 반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가 제공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유아는 개별적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기다려주거나,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② 주의집중 시간과 균형성 고려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주의집중 시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집단활동 운영시 인원구성, 하루 중 모이는 횟수, 진행시간, 영유아의 흥미, 발달특성, 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영유아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아의 경우는 되도록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유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을 조금씩 늘린다. 이때, 바른 자세를 강요하거나 이탈을 제지하지 않으며, 생리적 욕구에 의해 화장실을 가야 하는 영유아가 있으면 배려해야 한다. 또한 집단활동은 개별활동 및 대·소집단 활동,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③ 발달에 적합한 공간 구성과 교수매체 제공

집단활동은 인원 수, 연령, 활동유형 등에 따라 공간 및 영유아의 앉는 대형의 구조를 융통성 있게 변경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영유아들의 자리에서 교수자료와 매체가 잘 보이도록 교수자료의 크기를 고려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한다. 교수자료가 너무 작으면 영유아들이 교수자료를 보기 위해 책상 위로 올라가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와 목을 길게 빼고 이리 저리 움직이며 볼 수밖에 없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동적인 활동은 몸을 움직여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정적인 활동도 너무 비좁게 앉아 있으면 짜증으로 인해 영유아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보육교사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 유의한다.

④ 집단활동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집단활동시간에는 예시에서 제시된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4〉 집단활동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는 동생반 가서 바르게 앉는 법을 배워와야겠다. • 자꾸 떠들거니? 여기 너만 있니? 친구들한테 방해되잖아. • 생각하는 의자에 혼자 앉아 있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야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줄래? 친구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질문이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수업중이잖아. 넌 맨날 니 이야기만 하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둘이서만 이야기해 보자.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다리 했나요? • 똑바로 앉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 정! 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처럼 앉아볼까? 다리 모으고 앉아보세요. 허리도 쭉욱 펴 볼까? • 계속 앉아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구나. 우리 간단하게 체조해 볼까? 이제 괜찮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가 소유권을 더하자고 하자) • 오늘따라 필 꽃혔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반 친구들이 00노래가 신나구나? 우리 한번 더 해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에 대답할 때) • 다람쥐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땡/ 땡땡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하지 않는 대답일 경우) 00는 **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렇구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그런데 다람쥐는 도토리를 좋아한대.

(6) 실외놀이

① 실외활동 계획

실외놀이는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놀이하면서 긴장감과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영유아가 실외에서 맘껏 뛰고 달리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면 실내에서 생활할 때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실외에서 햇볕과 바람, 흙을 경험하도록 산책, 햇볕 쬐기, 놀이기구 타기, 신체 활동 등 실외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날씨나 기타 이유로 실외 놀이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대체활동을 계획하여 영유아의 욕구에 대처해야 한다.

② 안전한 환경 제공

영유아의 권리는 안전을 보장 받는데서 시작된다. 실외활동을 위한 안전은 물리적 환경과 안전지도로 구분될 수 있다. 보육교사는 놀이기구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점검표에 의해 시설과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실외놀이 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영유아와 안전을 위한 규칙과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자주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실외놀이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사항을 줄이고, 준비 운동을 시행하여 급작스러운 활동으로 영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③ 실외활동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실외활동시간에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5〉 실외활동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더 놀고 싶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혼자 여기서 놀이해, 우리는 들어 갈거야. • 너 자꾸 이러면 경찰아저씨에게 잡아가라고 전화할 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는 **놀이가 더 하고 싶은가보구나? 그런데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네. • OO야 우리 내일 또 와서 할까? • 내일은 OO 좋아하는 놀이감도 가져와서 놀이하자.
주운 물건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시 주인이 그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없어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꽃을 꺾으려 하는 경우	(꽃을 꺾으려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가 이 꽃을 꺾었으니까 나는 몰라. 네가 원래 대로 붙여놔. 아니면 혼날 줄 알아. 너 엄마 오시라고 해야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야 그렇게 꽃을 꺾으면 이 예쁜 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 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곳에 호기심이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는 저기 무서운 아저씨와 함께 있어. • OO는 여기 있어 우리 먼저 갈게. • 망태아저씨 OO이 데리고 가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안전을 위해 규칙을 지켜줄 수 있겠니?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놀이터에서 못 놀고 기다려야겠다. 넌 이렇게 놀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제 OO는 이 놀이는 할 수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규칙을 지켜서 놀이할 때 친구들과 더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어.
모래로 장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친구한테 모래 뿌리니? • 네가 원숭이야? 왜 원숭이처럼 매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를 손으로 탐색해보며) 이렇게 작고 까슬까슬한 모래가 입이나 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구나! 많이 따갑고 아프게 돼. 그러니 자꾸 뿌리면 안 되겠지? • OO는 던지기 놀이가 재미있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OO랑 친구들이 다칠까봐 많이 걱정돼. 던진 놀이감에 부딪히면 많이 아플 텐데. 던지지 말고 놀도록 하자.
기타	(실외놀이 때 자주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나오기만 하면 이래~ (매번 같은 친구와 짝꿍을 하려고 하는 유아가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만 맨날 네 생각대로 하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놀았구나! 배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아프지 않았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다음부터 밖에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자. • 애들이 친구들과 골고루 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고루 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7) 낮잠 및 휴식

① 편안한 분위기 마련

낮잠과 휴식은 영유아가 오전의 활동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오후 보육활동에도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낮잠을 통해 뇌세포는 쉬게 되고 기억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기억력이 강화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낮잠을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내려 빛을 차단하거나 조명을 조절하여 잠잘 수 있는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② 개별적인 낮잠습관 수용

만 0~1세 영아는 하루에 2회 정도 낮잠을 자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낮잠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든다. 피곤함으로 인하여 칭얼대거나 울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건강상태와 생리적 리듬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잠잘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잠들지 못하거나 일찍 일어난 유아를 위하여 별도의 휴식 공간 등에서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잠잘 때에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수면습관(등 굽어주기, 귀 만져주기, 토닥여주기 등)을 고려하여 재워주고, 강압적인 방법(위협적인 말, 동일한 낮잠 자세 요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갑작스러운 사고, 안전, 개인적 보살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낮잠시간이 끝나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고, 가볍게 토닥이거나 안아주고, 마사지를 하는 등 자연스레 잠이 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Tip 영유아의 수면 시간

- 만 0~1세 영아: 1일 1회 2시간 ~ 2시간 30분 정도 낮잠을 잠
- 만 2세: 1일 1회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 만 3세: 1일 1회 1시간 이상의 낮잠이 필요함
- 만 4세: 1일 1회 30분-1시간 정도의 낮잠이 필요함
- 만 5세: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낮잠이나 휴식의 기회를 꼭 제공함

③ 낮잠시간의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낮잠시간 동안에 갈등상황은 영유아가 잠을 못자거나 누워서 옆 친구와 장난칠 때,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못하거나 짜증낼 때 주로 관찰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6〉 낮잠시간의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잠을 못자거나 누워서 옆친구를 불편하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아저씨 데려 가세요. • OO는 아기 반에 가서 자고 와야겠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친구 자는데 방해가 되요. • 지금 안자고 있다가 늦게 잠들어서 깨울 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 자 빨리 자야지~ 언제까지 떠들거야? (옆 친구를 불편하게 할 때) • 너 밖에 혼자 나가있어야겠다. 너 친구랑 함께 놀 수 없어. 자지말고 여기 이 책상에 앉아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을 토닥이며) 선생님이 토닥 토닥해 줄게. 눈 감고 꿈나라로 가볼까? • OO아 ~ 짜증이 났니? 잠이 오는 구나~(인형을 안겨주며) 토끼도 코~자네, 우리 OO도 코 자네~ • OO야 잠이 안오니? 지금은 자는 시간이니까 잠이오지 않으면 누워서 쉬도록 하자(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놀이하느라 오늘 많이 피곤했지? • 친구가 자니까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친구가 꼭 잘 수 있도록 말아야.
애착물을 안고 자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요~ 치우고 자야지 • 잘때는 이런거 정리하라고 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가 인형을 찾는구나. 선생님이 인형 줄게요. 인형이랑 같이 꿈나라 갈까? • OO이가 가지고 온 수건이구나~ 음~ 좋은 향기가 나네~ 수건을 덮고 잘까?
이부자리 정리를 못하는 경우	(영유아가 이부자리 정리를 못하고 공공대고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 이제 네가 혼자 이불 정리해. 이제는 혼자 할 줄도 알아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이불을 선생님이 정리하고 베개와 인형은 OO이가 정리하면 어떨까? • 선생님이 이쪽을 잡고 있을 테니까 OO이가 한쪽 끝을 잡고 둘이 함께 이불을 정리할까?
자고 일어나서 짜증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잤으면 웃고 일어나야지. 왜 시끄럽게 울면서 짜증내는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서운 꿈을 꾸었니?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 잘 잤니? 좀 더 잘래? 친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언어영역에서 책 읽으면서 조금 기다릴까?

(8) 화장실 이용 및 배변

① 개별적인 상호작용

영유아가 개인적인 생리욕구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생활하는 것은 영유아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영아들의 배변은 개인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보육교사는 수시로 기저귀를 점검하고 영아들의 개인적인 생리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아들은 배변 훈련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모와 의논하고, 확실적으로 배변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하며 발달 속도에 따라 배변 경험이 긍정적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실시한다. 유아의 경우에도 개별적 생리욕구를 고려하여 집단활동 중에도 유아가 화장실 가기를 원하면 보내주어야 한다.

② 긍정적인 경험 제공

보육교사는 기저귀 갈기 시간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거나, 조용히 영아에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함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며, 배변훈련을 강제로 진행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퇴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대소변가리기를 할 때는 영아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으로 격려한다. 배변 시 실수가 나타날 경우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차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변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유아가 실수 없이 배변하였을 때는 칭찬을 통해 격려한다.

③ 화장실 이용 및 배변시간의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기저귀를 갈거나 배변 훈련 및 화장실 이용시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갈등상황이 주로 관찰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7〉 화장실 이용 및 배변시간의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배변 뒤처리가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혼자 못 닦아? 선생님도 좀 먹자! • 아우~ 냄새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번은 00가 해볼까? 정말 잘했어. 조금만 연습하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겠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가니? 아까 다녀오지 않았니? • 00는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지금 복도에서 놀고 있는 거니? • 00야 친구 밀면 안 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 다녀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렴. • 둘 다 많이 급했구나. 차례를 지켜야 모든 친구들이 기분 좋게 빨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
성기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영아의 성기를 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 봐~ 부풀어 오른다. 웃긴다. (자기 성기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뭐하는 거니? 그럴 거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애들이 여기 와서 봐봐. (친구의 성기를 보는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뭘 보니? 네거랑 똑같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의 몸은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 00의 몸을 다른 친구가 쳐다보면 어떨까? 부끄럽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도 누군가가 쳐다보면 많이 부끄럽대. • 우리 몸은 앞으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몸이라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몸을 자주 쳐다보고 몰래 지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지?
물장난 하거나 변기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누가 화장실에서 물장난하라고 했어? •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물을 내려야지. 냄새나서 미치겠네. • 변기에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해? 누구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는 물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양치하는 시간인데~ • 변기 물 내리는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뒤에 있네. 보이니? 이걸 누르면 물이 쏘~악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떤 모양으로 내려가는지 한 번 해볼까? • 물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겠니? • 변기에 다른 것을 넣으면 응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 변기엔 응가하고 쉬만 하는 걸로 약속 할 수 있겠니?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손씻기와 양치질을 안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손에 더러운 병균있네~ 손 안씻으면 그 병균 네가 다 먹잖아~ • 충치벌레야~ 00이 이빨 다 먹어라. • 야! 양치를 해야지. 더러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야 손 씻는게 힘들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도와줄까? • 양치를 하게 되면 입안의 세균을 씻을 수 있어서 더 맛있는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열심히 양치를 하려고 해. • 와~ 선생님이랑 누가 양치 잘하나 해볼까? •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이 어때? • (교사의 양치모습을 보여주며) 선생님은 이를 닦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어. • 00는 어느 이부터 닦을 거니? 선생님도 00처럼 해보아겠다.

(9) 귀가

① 하루 일과 평가하기

평가는 하루일과를 마치고 귀가 전에 하루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이루어진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과 하루를 지내면서 재미있었던 일, 속상했었던 일들을 회상해보고 속상했던 일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도록 돕는다. 영유아 간에, 교사와 헤어짐의 인사를 하고 다음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정보 전하기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귀가시간 전에 영유아의 물건을 챙기고 부모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정리한다. 부모가 데리러 오면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 기분과 건강 상태, 특이행동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유아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고 귀가하지 않도록 유의 하며 귀가 지도 시 유아를 곁에 두고 부모에게 칭찬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 긍정적 자존감을 갖도록 한다.

③ 귀가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귀가시간에 갈등상황은 놀잇감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려할 때,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 주로 관찰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18〉 귀가 시 갈등유발 상황 및 대처방법

상황	부적절한 대처방법	적절한 대처방법
놀잇감을 가정으로 가져가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너 도둑되면 좋아? • 이게 네거야? 어린이집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도 놀고 싶었구나. 그런데 이 건 백합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건데 00이가 집에 가지고 가면 다른 친구들이 못 놀아서 속상할 것 같아. 내일와서 다시 재미있게 놀면 어떨까?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떠드니? 애들아, 선생님 지금 대화중 이잖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육 중이라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유아가 하원한 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영유아권리선서

우리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영유아의 권리보호, 존중, 충족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
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보육활동에 부모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20 년 월 일

보 육 교 직 원 0 0 0

01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해 보육교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정기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시고 점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보세요.

항목		전혀 없음	1 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1	<p>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p> <p>·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돼지야, 이 못생긴 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p> <p>·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한 적이 있는 경우 :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애비 없는 자식,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p>				
2	<p>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p> <p>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p>				
3	<p>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p> <p>숫자 다 셀 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할거야, 동생 반이나 원장반으로 보내버릴거야, 엄마아빠한테 이룰거야, 집으로 내쫓을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p>				
4	<p>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p> <p>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p>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7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				

항목		전혀 없음	1 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적으로 아동에게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거야!”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카락이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 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기저귀갈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가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 **사용주기:** 근무개시 1주일 이내에 필수, 이후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연 2회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분류	세부내용
없다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있다'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신고사례

※ 본 사례의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피해아동명은 모두 가명임.

사례 1. (만 3세 / 남아) “왜 우리아이 팔을 물은 거죠?”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p>신고 내용:</p> <p>○ 어린이집을 다녀온 정호의 팔에 잇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음. 원장은 “정호한테 밥을 먹이는데, 자꾸 뱉어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먹었더니, 정호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순간적으로 제가 정호의 팔을 물었습니다.”라고 말함.</p> <p>현장조사 내용:</p> <p>○ 정호 엄마는 원장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정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자, 원장은 “검사비를 지급하겠습니다”고 답함.</p> <p>○ 원장은 정호 엄마의 진술과 다르게 “정호의 편식 습관을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먹게 했습니다. 뱉어내고 먹이는 과정이 몇 번 되풀이되니까 정호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머리를 들어올리다가, 제 바로 뒤에 있던 1~2세 영아가 다칠까 봐,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정호의 팔에 입이 닿은 거예요. 그냥 입을 댄 것 뿐인데, 정호 어머님께 아이의 팔을 물었다고 표현한 건 제 실수죠” 그러나 보육실습교사는 사건 당시 원장의 뒤에서 1~2세 영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함.</p> <p>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p> <p>○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고소고발(처분결과:)</p> <p> <input type="checkbox"/> 폐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금 반환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p> <p>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벌금 <input type="checkbox"/> 과태료</p> <p>○ 학대행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소고발(처분결과:)</p> <p>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 <input type="checkbox"/>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벌금 <input type="checkbox"/> 과태료</p> <p>○ 피해아동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input type="checkbox"/> 치료 <input type="checkbox"/> 교육</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어린이집 전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퇴원</p>	

사례 2. (비공개 / 여아) “선생님이 귀를 잡아당겼어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신고 내용:

○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정이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양쪽 귀와 이마, 볼에 상흔이 남아있었음.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OO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아왔으며, “민정이가 다른 친구와 놀다가 그랬어요.” 라고 하였음.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는 OO선생님이 귀를 잡아당겼다고 시인함.

현장조사 내용:

○ OO선생님은 “점심시간인데 민정이가 밥은 안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 깨라는 의미로 민정이의 양쪽 귀를 잡아서 잡아당겼습니다. 겨우겨우 먹이기 시작했는데, 식사 태도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두 손가락만 더 먹고 그만 먹자고 하며 달랬는데도 민정이가 밥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아서 침이 줄줄 흘러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다시 양쪽 귀를 잡아 당겼습니다.”라며 총 3번에 걸쳐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시인하였지만, 이마는 점심시간 전부터 빨갛게 되어 있었다며 다른 학대행위는 부인함.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반환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3개월 정지)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의 징역)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 3. (만 4세 / 3명) “CCTV를 보여주세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 신체학대 ■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신고 내용:

○ “선생님이 머리를 때렸어.”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발로 찼어.” “점심 늦게 먹는다고 나 혼자 두고 선생님이 친구들만 데리고 바깥놀이를 갔다 왔어.”
 산새소리반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엄마들이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집에 방문하여 함께 CCTV를 확인했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장면들이 확인되었음.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조사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한 교사가 평소 보육태도가 거친 편이긴 하지만,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으며, 아동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항의전화가 있어 교사들에게 주의를 준 적은 있다고 함

현장조사 내용:

○ CCTV 확인 결과 교사가 뛰어오는 동민이(만 4세)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2회 관찰되었고, 식사 중인 수연이(만 4세)에게 밀릴 정도로 책상을 밀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은혁이(만 4세)의 산만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2회에 걸쳐 40여 분간 타임아웃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감이 있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정서)로 판정함.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지급중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의 징역)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 4. (영아 / 3명 이상) “선생님, 장롱 안은 너무 무서워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p>신고 내용:</p> <p>○ 아동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롱이나 화장실에 감금시키거나 잦은 체벌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고 접수 건</p> <p>현장조사 내용:</p> <p>○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직교사와 퇴직교사들의 증언으로 “원장님이 우는 해은이(2세)를 장롱 속에 두었다가 한참만에 데리고 나왔는데, 해은이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이 현철(3세)이의 뺨을 때려서 얼굴에 손자국이 생겼고, 아현이(1세)의 머리를 벽으로 밀친 적도 있어요.” “영아반 아동에게 젖병을 물리고 방치해두어 구토를 유발시키기도 했고, 많이 먹으면 똥을 많이 싸니까 조금씩만 먹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아동을 장롱에 가두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라고 진술</p> <p>○ 처음엔 전·현직교사들의 증언 내용을 부인하던 원장은 현장조사가 계속되어지자 학대 행위를 부분적으로 시인함. 원장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이야기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고 진술</p> <p>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p> <p>○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고소고발(처분결과:)</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쇄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지급중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벌금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경고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주기:) <input type="checkbox"/> 기타(조치사항 없음) </p> <p>○ 학대행위자 <input type="checkbox"/> 고소고발(처분결과:)</p> <p>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 <input type="checkbox"/>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벌금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징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p> <p>○ 피해아동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input type="checkbox"/> 치료 <input type="checkbox"/> 교육</p> <p> <input type="checkbox"/> 타 어린이집 전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퇴원 <input type="checkbox"/> 격리보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p>	



사례 5. (만 2세 / 여아) “강제로 싫어하는 반찬을 먹였어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신고 내용:

○ “어린이집 원장이 1시간 50분 동안 음식을 먹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뽀를 때려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 날이 금요일이라서 주말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항의하러 갔더니, 원장님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딸아이의 집을 챙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조사 내용:

○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장은 “다솜이는 목욕할 때 얼굴에 물이 묻으면 우는 등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지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평소 편식이 심해서 담임교사 대신 제가 식사 지도를 종종 해왔어요. 그날도 갇빔을 먹지 않길래 편식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한 것인데, 다솜이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 머리채를 잡아서 엉덩이를 세 차례 손바닥으로 쳤어요. 그렇지만, 뽀는 결코 때리지 않았 습니다. 얼마전에 제 실수로 다솜이 몸에 멍이 생겨 제가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다솜이 어머니가 주장하는 대로 뽀를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언쟁이 오고갔지요.”

○ 원장 및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식사지도 시 강제로 진행된 점 등의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아동학대(정서학대)로 판단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반환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징역형)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 6. (만 1세 / 3명 이상) “선생님, 이불로 덮지 마세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신고 내용:

○ 어린이집 원장이 만 1세의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빈방에 가둔채 방치하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이불을 덮어씌운다는 내용으로 신고됨.

현장조사 내용:

○ 현장조사 시 주변인들에 따르면 “아이가 울면 달래야 하는데, 달래지 않고 계속 자지러지게 울도록 방치했어요.” “아동이 울면, 다른 아동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고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원장님은 우는 아동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아직 영아인데도 억지로 김치를 먹도록 강요하고, 어리니까 음식을 흘릴 수도 있는데, 원장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큰소리로 혼냈어요.” “원장님의 방에 한 번 다녀온 아동들은 원장님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등의 진술이 확보

○ 원장은 아동들이 심하게 우는 경우 격리 보호를 할 때가 있지만, 이불을 뒤집어씌우거나 고함을 지른 적은 없다고 항변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반환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징역형)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 7. (만 2세 / 여아) 정서적 안정감을 앗아가는 보육 환경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신고 내용:

○ 일주일 전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아이 턱에 멍이 들었고, 그 다음날은 볼에, 또 그 다음날은 턱과 볼 사이에 멍이 든 채 하원을 했으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잘 건지를 못해서 보니, 발바닥이 부어 있다며 신고

현장조사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어린이집 원장(학대행위자)은 “턱은 욕조에 부딪혀서 멍이 생겼고, 로션을 발라주었을 뿐인데 볼에 멍이 생긴 이유는 모르겠다.”며 학대행위를 부인. CCTV 화면만으로는 뺨을 때리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음.

○ 학대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명의 보육 전문가에게 1주일간의 CCTV 녹화본 분석을 의뢰. 보육 전반에 대해 방임 소견. 어린이집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학기 초 적응하지 못하는 하진(만 2세)이를 1~2시간 가랑 달래주지 않고 방치, 아동들의 기저귀를 공개된 장소에서 갈아주어 아동들로 하여금 정서적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불화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아동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또한 아동들이 낮잠 자는 방에 교사가 부재하거나 시설의 안전 관리에도 소홀한 면들이 지적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반환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징역형)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사례 8. (만 2세 / 남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주학대행위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대유형(중복응답)	■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 방임

신고 내용:

○ “배가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문의를 하니 모르는 일이라고 함.

현장조사 내용:

○ 엄마가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낮잠시간인 오후 1시경 아동들을 재운 후 교사가 3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 이 때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시후가 선생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20분 이상 교실을 돌다가 소변을 지렸음. 이후 귀가시간에 교사는 손으로 민호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린 후 벽에 세워두는 모습도 확인.

○ 현장조사에서 아이들만 재운 후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 묻자 담당 교사는 사건 당일 낮잠시간에 원장의 호출이 있어서 아동들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후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면서 그 날 이외에는 한 번도 아동들만 둔 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진술. 엉덩이 체벌에 대해 묻자, “제가 민호의 엉덩이를 때렸는지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CCTV를 보고서야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함

○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방임)로 판정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중복응답)

○ 어린이집 ☐ 고소고발(처분결과:)

☐ 폐쇄 ■ 보조금 반환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경고 ☐ 모니터링(주기:)

☐ 기타(조치사항 없음)

○ 학대행위자 ☐ 고소고발(처분결과: 징역형)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벌금 ☐ 과태료

■ 해임 ☐ 징계 ☐ 교육 ☐ 기타(사직, 아동부모와 합의)

○ 피해아동 ☐ 상담 ☐ 심리검사 ☐ 치료 ☐ 교육

☐ 타 어린이집 전원 ☐ 어린이집 퇴원

☐ 격리보호 ☐ 기타(보호자의 거부로 개입이 이뤄지지 않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16. 10월 기준)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0	보건 복지부	중앙	개별 사건 처리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06228)	02-558-1391
1	서울 특별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06362)	02-2040-4242
2		동남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05796)	02-474-1391
3		동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종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02520)	02-2247-1391
4		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현빌딩 2층 (07523)	02-3665-5183-5
5		은평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03472)	02-3157-1391
6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태안빌딩 4층 (07413)	02-842-0094
7		성북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타운힐빌딩 1층 (02833)	02-923-5440
8		마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공구빌딩 401호 (04088)	02-422-1391
9	부산 광역시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49240)	051-240-6300
10		동부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48101)	051-507-1391
11		서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4층 화명대림타운상가 405, 406호 (46536)	051-714-1391
12	대구 광역시	대구	중구, 수성구,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2층 (41906)	053-422-1391
13		남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2층 (42742)	053-623-1391
14		북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41539)	
15	인천 광역시	*인천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22134)	032-434-1391
16		북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재현빌딩 4층 (21408)	032-515-1391
17		남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홍트인천복지센터 4층 (21545)	032-424-1391
18	광주 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61966)	062-385-1391
19	대전 광역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 156 (34803)	042-254-6790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20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44421)	052-245-9382
2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 (16272)	031-245-2448
22		북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도림빌딩 4층 (11652)	031-874-9100
23		성남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 (13306)	031-756-1391
24		고양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삼정프라자 7층(10518)	031-966-1391
25		부천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9 서호빌딩 4층 405호 (14539)	032-662-2580
26		화성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송현빌딩 4층 (18303)	031-227-1310
27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다남빌딩 204호 (12239)	031-592-9818
28		안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슈마프라자 203호 (15458)	031-402-0442
29		용인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아카데미프라자 505호 (16977)	031-275-6177
30		시흥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 83 힐탐메디칼프라자 2층 (14911)	031-316-1391
31		평택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 (17877)	031-652-1391
32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홍천시, 철원군,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24257)	033-244-1391
33		동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술울로 5번길 33 반트빌딩 2층 (25515)	033-644-1391
34		원주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7 (26482)	033-766-1391
35		남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25735)	033-535-5391
36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번길 66-1 (28332)	043-217-1391
37		북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 (27152)	043-645-9078
38		남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 (29039)	043-731-3686
39	충청남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31140)	041-578-2655
40		남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84번길 55 (32974)	041-734-6640~1
41		서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32263)	041-635-1106
42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55099)	063-283-1391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43		서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코리아나빌딩 4층 (54595)	063-852-1391
44		동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57935)	063-635-1391~3
45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57935)	061-753-5125
46		서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층 (58615)	061-285-1391
47		중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58263)	061-332-1391
48	경상북도	남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 (38133)	054-745-1391
49		북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36692)	054-853-0237~8
50		동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 12, 3층 (37685)	054-284-1391
51		서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39276)	054-455-1391
52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51292)	055-244-1391
				(거제분소)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고현동주민센터내 (53256)	055-635-9752
				(양산분소) 경남 양산시중앙로209, 재향군인회관3층(50616)	055-367-1391
53		서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52773)	055-757-1391
54		김해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50924)	055-322-1391
55	제주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 (63084)	064-712-1391~2
56		서귀포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63593)	064-732-1391~2

04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016. 10월 기준)

연번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0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1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24(서소문동 5-1)	02)772-9814~8
2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동 961-17)	02)546-1736~7
3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성내동 556-1)	02)486-3556 02)486-3516~8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 410-293)	02)994-7480
5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내발산동)	02)2064-2730~2
6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봉천동)	02)851-2834~5
7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02)467-1827~9
8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02)859-5432, 5678
9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10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1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306-10)	02)3494-3341~2
1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2(답십리동)	02)2237-5800 2247-5843~5
1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02)823-4567
14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상암동 1686)	02)308-0202
1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홍은동 425-3번지)	02)3217-9550
16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서초동)	02)598-9340 02)596-9340
17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60(상왕십리동)	02)499-5675~6
18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하월곡동 222-6)	02)918-8080~2
19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오금동 50번지)	02)449-0505
20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해누리타운 3층	02)2646-7790~1
21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02)833-6022, 6025
2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02)749-9673~4
2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02)351-3629/3630
24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3~4층	02)737-0890 02)735-0850
25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신당동 292-60)	02)2263-2626
26		종랑구	서울특별시 종랑구 망우로 67길 10 망우분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27	부산광역시	부산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28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중앙로 110	051)991-0777
29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051)936-7011
30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 번길 17(괘법동)	051)321-3389



연번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31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지 22	051)866-7191
32	대구광역시	대구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내당2동 52-4번지)	053)421-2346-7
33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36	053)662-3521
34	인천광역시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빌딩 20층(구월동)	032)431-4606-9
35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 사회복지회관 1층	032)556-5712-4
36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19번길 10-18 4~5층 (송의2동 168-11 4~5층)	032)884-0756
37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 2층(삼산동)	032)361-8653-4
38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64(삼곡동)	032)568-7234
39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청사 내 604호	032)715-8262
40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2층 (운암동)	062)714-3636
41	대전광역시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동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042)721-1256-7
42	울산광역시	울산시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A동 3층 (옥동)	052)266-4173-4
43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51 (달동 1322-9)	052)256-9508-10
44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	052)275-1233
45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10-1	052)246-0600
4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044)865-0561
47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031)258-1485
48		경기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4층 (의정부동)	031)876-5767-8
49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031)975-3314
50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02) 6925-2526
51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소하 2동)	02)899-0163-4
52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031)765-6010
53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031-566-2323
54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031)393-0236
55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031)985-1901
56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031)528-4461-4
57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1층(상동 394-2)	032)322-8686
58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4층(복정동 667번지)	031)721-1640
59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47 (정자동)	031)255-5682-4
60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창조V관 421호(정왕동)	031)431-5682 031)431-6358
61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교 155 안산대학교채플관 B6호(일동)	031)415-2271-3
62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031)383-5170-1
63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031)8082-4225-6
64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2	031)374-5563
65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031)335-8690
66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031)455-1853-4
67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031)853-5006-8

연번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68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번길 38(중리동)	031)634-9842~4 031)634-9846
69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031)954-4800
70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 (비전동)	031)692-7705
71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031)8059-1640~2
72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1동)	033)244-2660, 4660, 8660
73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안길 3(3층) (포남동)	033)641-1382 642-1383
74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410호(북대동)	043)239-8777~8
75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3-2(내덕동)	043)222-6660
76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1층(의회동)	041)634-6234~9
77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23 2층 (두정동)	041)561-2821~2
7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1 38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2층(2-5)	063)276-8080~1
79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063)564-0862
8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0 (1~2층)	063)911-0756
8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43	063)859-4765
82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번길 2동 3층	063)905-6509
83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전남여성플라자 2층	061)285-5455~6
84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054)337-9939~40
85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기차역옆길 25(흥덕동 257-1)	054)701-2337
86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 평생학습원 407호(상도동)	054)256-2580,2,7
87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13-2471~5, 7
88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463번길 17(하대동)	055)749-2156
89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4층	055)287-1216
90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055)934-0883~4
91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	064)746-2211



참고문헌

- 교육부·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김승옥(2013). 영유아를 존중하는 일과운영. 아동학대자 교육명령제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재)한국보육진흥원.
- 노충래(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력 강화와 입법과제. 제3차 국회의원장 정책현장 입법간담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 문선화 외(2010). 아동학대의 이해. 양성원.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1). 안전·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2). 20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집.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 서영숙·서혜정·김진숙(2009). 보육교사용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 염지숙 외(2008). 유아교사론. 정민사.
- 이완정(2005). 보육시설 영유아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육종사자윤리강령 연구. 아동권리
연구, 9(4), 789-916.
- 이완정(2015). 영유아 인성보육의 전망과 과제. 제2회 인성보육포럼자료집. (재)한국보육진흥원.
- 이은혜(2003).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찰척도(사용지침). 서울:다음세대
- 이주희 외(2012). 인성함양. 공동체.
- 조형숙(2009). 유아교사의 교직윤리관련 딜레마에 나타난 갈등요인. 유아교육학논집, 243-276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 황정규 외(1996). 대학 교육이 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평가 패러다임, 결과 및
함의. 고등교육연구 8(1), 한국고등교육학회, 151-179.
- 황혜정(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가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5:
339-359.
- 한국보육진흥원(2012).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2016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인 쇄 : 2016년 10월
발 행 : 2016년 10월
발 행 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대표전화 : (02) 701-0431
팩 스 : (02) 6901-0221

* 본 책자의 판권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본 출판물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